환경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배포 2024.12.23.(월)

환경부, 광양만권 안정적 물 공급망 구축으로 철강·석유화학산업 활성화 마중물 기대

- 2030 광양만권 물 공급망 구축 로드맵 마련 및 업무협약 체결 -

□ 영산강유역환경청(청장 김영우)은 '22~'23년 남부지역의 극한 가뭄을 겪으면서 광양만권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 필요에 따라 "광양만권 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2030 로드맵"을 마련하고, 실효적 이행을 위해 지자체, 산업계와 업무협약을 12월 23일 체결했다고 밝혔다.

○ 참여 기관은 여수시, 광양시,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산업단지공단, 포스코 광양제철소·여수산업단지공장장협의회(이하 '산단기업'이라 한다)로, 용수 사용량이 많은 주요 기업 등이 참여했다.

※ 여수산업단지공장장협의회는 협의회장인 GS칼텍스를 비롯하여, 금호석유화학(주), 여천NCC(주), LG화학 등 38개 회원사로 구성됨

□ UN산하 '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(IPCC)' 6차보고서에 따르면,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빈도 및 강도는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, 우리 지역도 '22년 기상가뭄 발생일수가 281일로 '73년 기상 관측이래 최장기간 가뭄이 발생, '23년 주요 수원인 주암댐의 저수율이 역대 최저(저수율 20.3%)를 기록하는 등 용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.

○ 광양만 지역은 '23년 가뭄 해결을 위해 '주암댐 보성강댐 연계운영', '섬진강 하천 유량상황에 따른 주암댐·섬진강댐 용수 비축', '기업체의 물 수요 절감 노력' 및 '주민 자발적 물 절약 실천' 등 단기대책을 통해 가뭄을 극복하였으나, 평상시에도 물 부족이 예상되어 용수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.

□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광양만권이 2차전지 등 첨단 산업 신·증설 등에 따른 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 안정적 용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선제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"광양만권 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2030 중·장기 로드맵"을 마련하고, 관계기관 및 산업계와 함께 용수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.

○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△광양만권 주요기업의 폐수 재이용 및 용수 절감 공정 발굴(약 5만톤/일), △장흥댐-주암댐 연계 등을 통한 여유량 확보 등 용수공급체계 조정(약 12만톤/일), △하수처리수 재이용(약 7만톤/일), △지하수댐 개발(약 2만톤/일)을 통해 '30년까지 약 86백억원을 투자하여 하루 총 26만톤의 용수를 추가 확보하는 것이다.

※ 26만톤/일은 전라남도 여수시(약 27만명) 하루 생활용수의 약 2배

□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철강·석유화학산업 기업이 용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친환경 고부가가치 사업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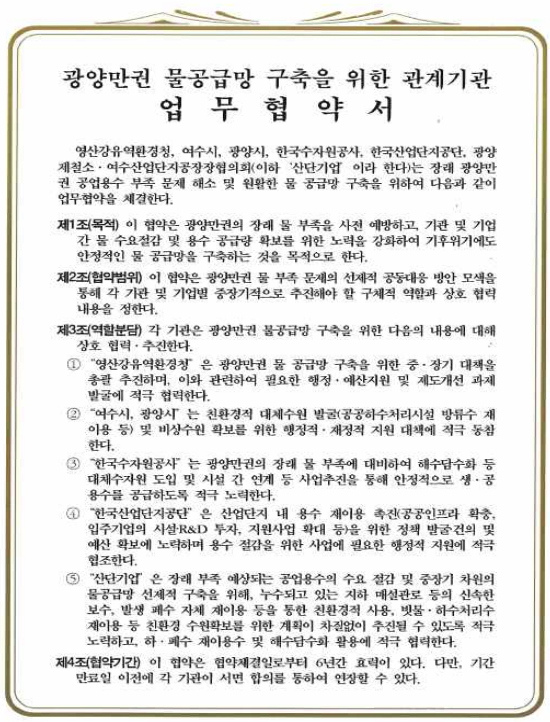
붙임 : 협약서 및 관련사진 각 1부. 끝.

담당 부서 <총괄>	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	책임자	과 장	곽명안 (062-410-5310)
		담당자	주무관	박준영 (062-410-5311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 임 **협약서 및 협약사진**

□ 협약서



광양만권 물공급망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
업 무 협 약 서

영산강유역환경청, 여수시, 광양시,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산업단지공단, 광양제철소 · 여수산업단지공장장협의회(이하 '산단기업' 이라 한다)는 장래 광양만권 공업용수 부족 문제 해소 및 원활한 물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광양만권의 장래 물 부족을 사전 예방하고, 기관 및 기업 간 물 수요절감 및 용수 공급량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기후위기에도 안정적인 물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약범위) 이 협약은 광양만권 물 부족 문제의 선제적 공동대응 방안 모색을 통해 각 기관 및 기업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구체적 역할과 상호 협력 내용을 정한다.

제3조(역할분담) 각 기관은 광양만권 물공급망 구축을 위한 다음의 내용에 대해 상호 협력 · 추진한다.

① "영산강유역환경청" 은 광양만권 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중 · 장기 대책을 총괄 추진하며,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행정 · 예산지원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적극 협력한다.

② "여수시, 광양시" 는 친환경적 대체수원 발굴(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 등) 및 비상수원 확보를 위한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 대책에 적극 동참한다.

③ "한국수자원공사" 는 광양만권의 장래 물 부족에 대비하여 해수담수화 등 대체수자원 도입 및 시설 간 연계 등 사업추진을 통해 안정적으로 생 · 공용수를 공급하도록 적극 노력한다.

④ "한국산업단지공단" 은 산업단지 내 용수 재이용 촉진(공공인프라 확충, 입주기업의 시설·R&D) 투자, 지원사업 확대 등)을 위한 정책 발굴·건의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하며 용수 절감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협조한다.

⑤ "산단기업" 은 장래 부족 예상되는 공업용수의 수요 절감 및 중장기 차원의 물공급망 선제적 구축을 위해, 누수되고 있는 지하 매설관로 등의 신속한 보수, 발생 폐수 자체 재이용 등을 통한 친환경적 사용, 빗물 ·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친환경 수원확보를 위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, 하 · 폐수 재이용수 및 해수담수화 활용에 적극 협력한다.

제4조(협약기간)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6년간 효력이 있다. 다만, 기간 만료일 이전에 각 기관이 서면 합의를 통하여 연장할 수 있다.



제5조(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) ① 각 기관은 일방의 비협력 등의 사유로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1개월 전에 각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6조(비밀유지) 각 기관은 이 협약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. 이 협약이 기간 만료, 해제 등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같다.

제7조(법적구속력) 이 협약은 제5조를 제외하고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갖지 않는다.

제8조(협약의 효력) 영산강유역환경청, 여수시, 광양시,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산업단지공단, 산단 기업이 협약서에 서명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, 모든 기관 간 합의가 성립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4년 12월 23일

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김영우

여수시 여수시장

광양시 광양시장

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영·섬유역본부장

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장 염종일

posco 광양제철소장

여수산업단지 공장장협의회 회장

여수산업단지공장장협의회 회원사(38개사, 무순)

GS칼텍스㈜, 금호석유화학㈜, 여천NCC㈜, 이엔에이화학, 한화솔루션㈜, 롯데케미칼㈜, 이테크, 한국바스프㈜, 남해화학㈜, LX세미콘㈜, 롯데이노베이트㈜, 금호피앤비화학㈜, 금호미쓰이화학㈜, 아덱장하나㈜, 아동성㈜, 백광산업㈜, 코나푸르보프㈜, 삼남석유화학㈜, 아쿠에스엔엠에이, 광국남동발전㈜, 여수엘퓨본부, 오라이온코리아㈜, TKG휴켐스㈜, 제일사업㈜, 이테크, 에이알코레이드(주), 그린정밀화학㈜, 포오투인터스트리㈜, 유호플라켐㈜, 씨엘아가본코리아㈜, 한화에어로스페이스㈜, 한화에너지㈜, 보성엔텍합작회사, 한국동서발전㈜ 신호남전력운영본부, 사업산업㈜, CBI㈜, 에이리퀴드코리아㈜, 에스와이텍크리닝㈜

□ 관련사진



영산강유역환경청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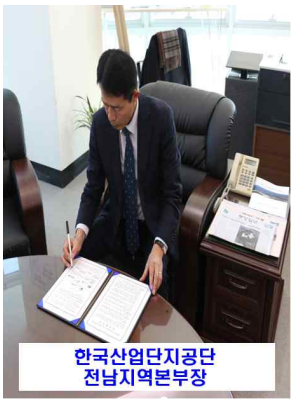
여수시장



광양시장



한국수자원공단
영 · 섬유역본부장



한국산업단지공단
전남지역본부장



포스코 광양제철소장



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장